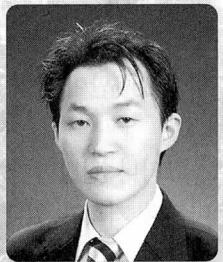




# 명분만 얻고 실리는 다 내준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 협상타결과 향후 대응전략 -



배 정 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차장

## 1. 들어가며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반대 목소리는 한 순간에 묻혀버렸다. 마치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FTA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희망섞인 메시지들을 띄우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전망 속에 가장 피해가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대책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뿐이다.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장밋빛 대책들만 언론에 난무하고 있다. 전체 농업에 대한 피해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진정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이나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금번 한미 FTA 협상타결이 시사하는 바를 잠깐 살펴보자. 우선은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의 4대 선결조건(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

등)을 수용하였다. 정부는 협상이 본격 진행되면 서부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쌀만은 기필코 지키겠다고 했고(쌀은 당초 협상의제가 아님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주요 민감품목들은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을 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여론을 조성해 몰고 갔다.

## 2.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니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를 구성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해왔다. 더불어 범시민, 사회단체와 연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국민 여론



조성과 연대를 강화해 나왔다. 그러나 대중언론은 반대입장에서 있는 목소리를 담기에 역부족했고, 혹여나 시위가 격렬해지면 폭력집회, 교통체증 문제만을 부각시키는데 급급했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집회신고마저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한마디로 역사 이래 사상최대의 개방시대를 맞게됐다. 우리는 미국측이 요구한 예외없는 전면적인 관세철폐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농업분야를 보면 앞서 제기한 바대로 당초 협상의제도 아니었던 쌀만은 지켰다고 하나, 이를 제외하면 모든 품목이 10년 내지 15년 이내에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되었다.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말들이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 3. 낙농육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우선은 금번 협상에서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피해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탈지·전지분유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현재 176%)를 지켰다고 하나, 그 결과적으로는 무관세인 TRQ 물량을 과도하게 내주고 말았다. 명분만 얻고 실리는 내준 셈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국내 원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탈지·전지·연유에 대한 TRQ 5천톤은 국내생산량의 15%를 상회하고 있으며, 치즈(TRQ 7천톤) 등 전체 TRQ 물량을 원유로 환산할 경우 약 15만톤 수준으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량(217만톤)의 7%, 수입물량(88만톤)의 17%로 매우 높다. 이마저도 매년 복리로 3%씩 계속 늘어나게 돼있다.

아직 협정문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아 이후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TRQ 수입물량을 관리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측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국영무역 방식 배제나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등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우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내수급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우유시장은 대부분 시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원유를 이용한 유제품시장은 형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원유생산량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 빈

〈낙농·육우 부문 한미FTA 협상 결과〉

품목	협상결과	
낙농품	○탈지분유·전지분유·연유 - 현행관세 유지, TRQ 물량 제공(5,000톤, 매년 복리 3% 증량)	
	○혼합분유 - 10년 폐지, 조제분유 - 10년 폐지, TRQ물량 제공(700톤, 매년 복리 3% 증량)	
	○밀크와 크림 10~15년 폐지 - 지방함량 6% 이하 15년 폐지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12년 폐지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10년 폐지	
	○치즈 - 체다 10년 폐지, 나머지 15년 폐지, TRQ 물량 제공(7,000톤, 매년 복리 3% 증량)	
	○버터 - 10년 폐지, TRQ 물량 제공(200톤, 매년 복리 3% 증량)	
	○유장 - 식용 10년 폐지, TRQ 물량 제공(3,000톤, 매년 복리 3% 증량) - 사료용 즉시 폐지	
	○유당 5년 폐지 ※ TRQ 물량은 무관세임	
	쇠고기	○냉장·냉동쇠고기 - 15년 폐지, 15년차까지 SG 발동 - SG발동물량 : 27→36만톤(매년 6천톤 증량) - SG발동세율 : (1~5년까지)실행세율 100→(6~10) 75→(11~15)60%
		○부산물등 기타 : 15년내 관세철폐, SG 미적용
		사료품목
○보조사료 12년 폐지, TRQ물량 제공(5,500톤, 매년복리 3% 증량)		
○옥수수(사료용), 대두(채유 및 박용) 즉시 폐지		



## 특집

자리를 수입 유제품이 채우고 있는 실정에서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낙농축소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재개와 맞물려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육우부분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쇠고기 생산량의 약 2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한미 FTA 협상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SE 파동 이후 중단되었던 것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재개되었고, 게다가 금번 협상에서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등급평가와 관계없이 뼈를 포함한 부위까지 사실상 약속하고 타결한 협상이라 볼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미국측은 최대 현안이 쇠고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대책들이 한우에 대해서만 제기되고 있어 육우는 그야말로 서자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우든 육우든 형평성측면에서도 당연히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한우가격 대비 60%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육우가 이전 40%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닐 터이다.

### 4. 타결 무효와 병행한 대책마련 시급

한미 FTA 농대위를 비롯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FTA 협상타결은 무효라는 입장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농민단체에서는 가칭 한미FTA 반대 국회·시민사회 비상시

국회의를 결성키로 뜻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지난 회장단·도지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떠 이달 초에는 한·EU FTA 협상 추진을 선언한다고 한다. 이제 FTA는 연례행사처럼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다. 만약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농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산업의 주인인 생산농가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낙농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낙농제도개혁이다. 지난해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해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참여방안들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모든게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라도 낙농, 유업 모두 전체파이를 키우는 쪽에 사고를 갖고 합심해야 할 때다.

육우부분은 이제 더 이상 그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똑같은 농가에게 우체의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육우는 한우와 더불어 국내 쇠고기 시장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다. 육질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2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육과 비교해서 신선도, 육질, 풍미 등 모든 면에서 우리농가들은 경쟁력을 키워왔다. 이는 당연히 한우와 같은 기준에서 육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대책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다.



## 5. 맺음말

현재 다자간 협상인 DDA는 예정된 기한을 넘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DDA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FTA 협상은 경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연 앞으로 전개될 한·EU, 한·캐나다, 한·중국 등 협상에서 우리농업과 낙농산업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시점은 이미 위기가 한 가운데 서 있게 될 때일 것이다. 앞서 제기한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들일게다. 결국 어떠한 제

도나 대책도 소비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유의 제도적인 학교급식문제와 육우고기의 판로확대를 위한 하나로 마트 입점 문제들은 어쩌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모두가 걱정만 바대로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과 변화에 항상 열린마음과 자세로 준비하고 합심하여 대응해야 할 때다. ☺